

보편자에 대한 유사성 이론들의 문제점*

- 트롭 유사성 이론을 중심으로 -

김 회 정[†]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성질이나 관계의 반복을 설명하는데 보편자를 설정하지 않으려는 유사성 이론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론들의 동기는 불필요한 존재자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려는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성 이론들 각각이 설정하는 특수자와 유사성과 만으로 성질의 반복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보편자를 설정하는 입장을 논박했다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존 로크 이래 이제까지 제시된 몇 가지 유사성 이론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한다. 그것의 가장 진전된 버전은 트롭 유사성 이론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유사성 이론에 비해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입장조차 트롭들과 그것의 유사성에만 의거해서는 성질의 반복현상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 이론은 유사성을 내적인 관계라고 규정하고 유사성에는 정확한 유사성과 부정확한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 필자는 정확한 유사성이란 개념이 트롭 이론 내에서 결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논증한다. 또한 부정확한 유사성에 대해서는, 단지 성질의 트롭과 유사성의 트롭만으로는 반복되는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함을 논증한다. 부가적으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주 제 존재론, 분석적 형이상학

주요어 보편자(종적/ 유적), 유사성(정확한/ 부정확한), 트롭(trope), 내적인 관계

* 접수완료: 2003.3.31. / 심사 및 수정완료: 2003.5.6.

† 서울대 강사

우리는 이 종이의 색깔 에, 다음 장의 색깔에 “흰색”이라는 술어를 부여한다. 왜 그런가? 유사성 이론은 두 장의 종이에 동일한 술어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들이 부여되는 대상이나 성질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 우리가 사는 세계를 파악하는데 소위 성질이나 관계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본다. 성질이나 관계의 반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보편자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그것을 유사성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형태의 유사성 이론이든 그것을 주장하는 동기는 보편자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개별적인 사물들에게서 어떤 성질이 반복되는 것을 보편자에 의뢰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면, 특수자 이외의 다른 존재자를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수자이다. 그런데, 특수자 이외에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진다. 그들이 인정하는 근본적인 특수자를 개별적인 사물로 보는 입장과 개별적인 성질과 관계로 보는 입장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사물 유사성 이론가들에게는 개별적인 사물이 바로 그들이 의미하는 특수자이다. 로크(John Locke)와 프라이스(H. H. Price)의 입장이 여기 속한다. 반면에 성질과 관계의 유사성 이론가들에게는 특수한 성질과 관계가 그들이 의미하는 특수자이다. 이들은 개별적인 사물은 보다 근본적인 구성요소인 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적인 사물을 구성하는 성질은 그것과 정확히 똑같은 의미에서 특수자라고 주장한다. 그 입장이 바로 트롭(trope) 이론이다.²⁾ 윌리엄즈(D. C. Williams)와 스타우트(G. F. Stout)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런 입장을

-
- 1) 여기서 필자는 색깔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성질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색깔을 성질의 예로 든 것은 다른 철학자들이 흔히 그렇게 하듯이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만약 성질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성질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 2) 트롭 이론이란 각 사물에 속하는 성질과 사물들 간의 관계가 사물이 특수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특수자라고 간주하는 입장이다. 스타우트와 윌리엄즈가 각각 독립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트롭(trope)”이라는 명칭은 윌리엄즈가 붙인 것이다. G. F. Stout (1921-22), (1923), (1936) ; D. C. Williams (1953).

제시했으며, 덴켈(Arda Denkel), 캠벨(Keith Campbell), 라보시에(Michael C. LaBossiere) 등이 이것을 지지한다. 이들은 예컨대 흰색이 반복되는 것을, 흰색 그 자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여러 장소에 예화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사성 이론에 의하면, 보편자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은 채, 사물의 유사성이나, 혹은 사물에 속해있는 성질들 간의 유사성에 의해 성질의 반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수자-그것이 개별적 사물이든 성질이든-와 그것의 유사성에 의뢰해서만 어떤 성질이 반복되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를 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어떤 형태의 유사성 이론도 특수자와 그것의 유사성만으로는 성질의 반복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유사성 이론의 가장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버전인 트롭 유사성 이론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트롭 유사성 이론이 유사성 이론들 중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다른 입장들은 성질이나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난점을 가지는 반면, 그 입장은 그런 난점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1절에서 성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두 형태의 유사성 이론들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절에서, 1절에서 논의한 형태의 유사성 이론들보다 우월한 덴켈의 트롭 유사성 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보다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인 캠벨과 라보시에의 트롭 유사성 이론을 서술한 다음, 3절에서는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유사성에는 정확한 유사성과 부정확한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 필자는 정확한 유사성이란 개념이 트롭 이론 내에서 결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확한 유사성에 대해서는 트롭과 그것의 유사성에만 호소해서는 성질의 반복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트롭 이론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1. 개별적 사물들 간의 유사성

1.1 유사성 유명론

성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다. 이것에 의하면, 진정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물들이고, 소위 성질의 반복은 그것들의 유사성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유사성 유명론이라고 부르겠다. 이 입장은 존 로크가 지지했다.³⁾ 예컨대 두 종이에서 흰색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보자. 유사성 유명론자는 흰색의 반복은 다른 아닌 두 종의 유사성이라는 것이다. 특정한 사물들에 동일한 술어 “흰색”을 부여하는 것은, 그 술어에 대응하는 성질이 있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 동일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물들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장의 가장 치명적인 난점 중 하나는 개별적인 사물들에 2개 이상의 성질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고려되고 있는 한 쌍의 반복적인 성질을 골라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두 종이 사이에, 그것이 희다는 성질 뿐 아니라 같은 크기라는 점에서, 직사각형이라는 점에서, 또 1g의 질량이 나간다는 점 등에서 반복이 나타날 수 있다. 두 사물에 공존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의 반복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의 반복을 설명하는데 사물의 유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물의 유사성에만 호소해서는 어떤 성질의 반복을 지적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흰색의 반복을 설명하려는지, 아니면 크기의 반복을 설명하려는지, 직사각형의 반복을 설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혹자는 어떤 측면(aspect)에서 두 종이는 유사하다고 말함으

3) Locke (1961), Book III, Ch. III. 물론 보편자의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개념적 유명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는 반복되는 경우들에 진정으로 공통적인 것은 개념 뿐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떤 경우들에 “흰색”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에 의하면 이런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관념이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개별적인 사물들로부터 추상함으로써 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그렇게 추상하는 데에는 사물들이 가지는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입장은 개념적 유명론과 유사성 이론이 결합된 형태이다.

로써 각각의 성질의 반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측면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유사성 유명론이 피하고자 하는 바이다. 측면에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성질의 보편자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이해될 필요는 없었지만, 적어도 유사성 유명론자와 범례(paradigm) 유사성 이론을 지지하는 프라이스는 그렇게 이해했다.

트롭 유사성 이론을 지지하는 덴켈은 측면에 의뢰하는 것이 곧바로 보편자로서의 성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올바르게 논증한다.⁴⁾ 트롭 이론이 보편자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국면을 연 것은 성질이나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곧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유사성 유명론자와 프라이스는 보편자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질과 관계가 근본적인 존재자라는 것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덴켈은 측면에 의뢰하는 것은 바로 특수자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측면에 의뢰한다면 적어도 성질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덴켈의 입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다 진전된 형태의 유사성 이론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1.2 범례(paradigm) 유사성 이론

프라이스의 범례 유사성 이론은 측면에 의뢰하지 않으면서 성질의 반복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어떤 성질의 반복은 전형적인 예들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범례에 의거하여 설명된다는 것이다. 범례가 되는 개별적인 사물들이 서로 닮고 있는 만큼 그것들과의 닮음에 의해 성질의 반복이 설명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집합은 전형적인 대상들 혹은 전형적인 예들의 작은 무리로 구성된 핵심 원소들의 내적인 울림, 즉 핵심(nucleus)을 가진다. 붉은 사물들의 전형

4) 2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적인 예들은 어떤 토마토, 어떤 벽돌, 어떤 영국의 우편함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간단히 A, B, C라고 부르자. 그렇다면, 붉은 사물이란 A, B, C가 서로서로 닮은 것만큼 가깝게 그것들을 닮아 있는 사물이 된다. 전형적인 예들 간의 유사성이 물론 지금 주어진 예에서는 아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주 가까운 것일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그 집합의 모든 다른 원소가 그것의 전형적인 예들이 서로서로 닮은 만큼 가깝게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집합의 전형적인 예들이 여름 하늘, 레몬, 우체통, 잔디 일 수도 있다. 이것들은 아주 가깝게는 아니지만 서로서로 닮았다. 따라서, 이 네 사물들이 서로서로 닮은 만큼 가깝게 그것들을 닮은 모든 것들의 집합이 존재한다. 앞의 것이 붉은 사물의 집합인 반면, 그것은 색깔이 있는 사물들의 집합이다.⁵⁾

그는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모든 원소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로크와 같은 유사성 이론가와 마찬가지로 그는 성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가 의미하는 집합이란 개별적인 사물들의 집합을 말한다. 한 집합의 어떤 원소들은 보다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는데 그것들이 바로 범례, 즉 전형적인 예라는 것이다. 예컨대, 소위 붉은 사물의 집합을 보자. '어떤 토마토, 어떤 벽돌, 어떤 영국 우편함' 등이 붉은 사물의 집합의 표준적인 예다. 어떤 사물이 이 전형적인 예들이 서로서로 유사한 만큼 가깝게 닮아 있다면, 그것은 붉은 사물들의 집합에 속한다. 즉, 이 사물도 붉고 저것도 붉다고 하는 반복적인 현상은 전형적인 사물들이 닮은 정도로 그것이 범례들과 닮아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즉, 이 사물도 범례들이 서로 유사한 만큼 그것들과 유사하고, 저 사물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의 입장은 사물의 측면에 의뢰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성질의 반복을 설명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측면에 의뢰하는 것이 곧 보편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전형적인 범례들끼

5) Price (1953), pp.20-21.

리 어떤 측면에서 닮았느냐고 묻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것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범례들이 어떻게 선택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 그의 입장은 사물의 측면, 즉 성질에 대해 고유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전형적인 범례로서 선택하려고 할 때, 이미 어떤 측면을 고려하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을 곧 보편자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집합의 범례로 어떤 붉은 토마토를 선택하고, 또 어떤 붉은 벽돌과 어떤 영국의 우체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다. 즉, 개별적인 사물의 성질 -그것이 보편자이든 특수자이든- 에 주목해야 다른 여러 사물들 중 어떤 집합의 핵심적인 예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토의 붉음, 벽돌의 붉음, 우체통의 붉음은 공통되는 단일한 성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사한 성질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입장은 성질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보편자이든 특수자이든 성질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범례에 의뢰하는 것은 불필요해진다.

프라이스는 위의 인용문의 전반부에서 보다 정확한 유사성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부정확한 유사성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그것은 소위 종적인(specific) “보편자”와 유적인(generic) “보편자”를 설명한다. 종적인 “보편자”란 보다 가까이 닮고 있는 범례들이 닮은 만큼 다른 사물들이 닮고 있는 사물들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한편, 유적인 “보편자”는 범례들끼리 아주 가깝게 닮지 않았지만 느슨한 유사성이 있고, 다른 사물들이 그것들이 닮은 정도만큼 느슨하게 닮고 있는 집합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프라이스의 입장은 성질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난점이 있다. 가깝게 닮고 있는 사물들의 집합의 범례들을 선택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자. 즉, 앞서 필자가 지적했듯이, 이미 측면(성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제를 덮어두자. 범례 유사성 이론은 적어도 종적인 “보편자”의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 로크식의

유사성 유명론이 가지고 있었던 난점, 즉 두 사물의 쌍에 공존하는 성질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은 피할 수 있다. 서로 공존하는 성질들이 반복되는 개별 사물들을 범례로 삼지 않으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반복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프라이스가 든 예처럼, ‘어떤 토마토, 어떤 벽돌, 어떤 영국의 우편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들이 서로 닮은 것은 빨간색이지 특정한 모양이나 특정한 무게는 등은 아니므로, 이것들로부터 빨간색 이외의 다른 성질의 반복됨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선택된 범례들의 의거해서 유적인 “보편자”를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범례들은 서로서로 아주 가깝게 닮지 않고 보다 느슨하게 닮아 있고, 그것들이 닮은 정도로 어떤 사물이 그것들과 닮아 있다면, 그것은 보다 느슨한 의미에서 성질의 반복을 설명해 준다고 했다. 프라이스는 색깔이라는 유적인 “보편자”를 설명하기 위한 범례로 ‘여름 하늘과 레몬, 우체통, 잔디’를 제시한다. 그런데 여름 하늘과 레몬, 우체통, 잔디가 색깔의 범례들일 수도 있지만, 모양의 범례들일 수도 있고 혹은 크기의 범례일 수도 있다. 한 사물에는 여러 성질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특히 유적인 성질의 반복을 설명하기 위해 전형적인 개별적인 사물들의 예들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난점들로 범례 유사성 이론의 부적절함은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성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 개별적인 사물의 유사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성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반복되는 성질을 그것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이해하려는 입장과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2. 트롭들 간의 유사성

앞의 입장들과는 달리 성질과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 있다. 이것에 의하면, 개별적인 사물은 존재론적으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질과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이 입장 내에서 성질의 반복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적어도 세 가지의 입장이 주목할 만 하다. 첫째로, 성질의 반복은 문자 그대로의 동일한 성질이 다수의 장소에 예화된다는 보편자 실재론의 입장이다. 둘째로, 성질의 반복은 특수한 성질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속함에 의해 설명된다는 스타우트의 입장이다. 그는 성질의 반복은 특수한 성질들이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분배적인 통일체(an unanalyzable distributive unity)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한다.⁶⁾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성질이란 다름 아닌 특수한 성질들 간의 유사성이라고 설명하는 트롭 유사성 이론이다. 필자가 이 절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바로 마지막 입장이다. 스타우트의 입장과 트롭 유사성 이론 양자 다 특수한 성질들의 유사성을 인정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자는 그것들이 하나의 집합에 속하는 것이 원초적인 관계이고 유사성은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후자는 특수한 성질들 간의 유사성이 원초적인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의 집합을 형성하는 것은 그것들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트롭 유사성 이론에 의하면, ‘흰색’은 하나의 단일한 성질, 즉 문자 그대로의 보편자가 아니라, 특수한 성질들의 유사성 때문에 만들어진 그것들의 집합을 지시한다. 이런 의미론적인 주장은 트롭 유사성 이론의 존재론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즉, 성질의 반복을 설명하는데 유사한 트롭들 이외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들 간의 유사성은 보편자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즉, 두 트롭들은 그것들 자신 때문에 서로 유사한 것이지, 어떤 공통적인 것을 공유함에 의해 서가 아니라고 한다.

2.1 덴켈의 입장

덴켈은 구체적인 사물들의 유사성을 설명할 때, 측면들을 거론하는 것

6) Stout (1921-1922), Stout (1936) 참조.

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사물들의 측면들을 거론하는 것이 곧 보편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에게서 사물들의 측면이란 문자 그대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사물들에 속해있는 각각의 성질을 국면(aspect)이라고 칭한다. 국면을 그것이 속하는 사물이 특수한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특수하다고 간주하는 점에서 그의 입장을 트롭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특수한 성질에 대한 입장의 일정 부분은 윌리엄즈나 켈벨과 같은 트롭 이론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한 사물의 국면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국면들과의 공존하는 가운데 한 개별 사물에 속해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개별 사물의 국면과 앞의 트롭 이론가들의 트롭은 외연적으로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덴켈도 또한 트롭 이론가로 간주할 것이고, 그가 한 개별 사물의 국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트롭으로 간주하겠다. 덴켈이 말하는 한 개별 사물의 국면과 윌리엄즈나 켈벨이 말하는 트롭은 반복 불가능한 특수한 속성을 의미한다.⁷⁾

이제 덴켈이 성질의 반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푸른 사물들의 집합의 통일성은 한 특수한 사물의 주어진 국면과 다른 사물들의 특수한 국면들 사이의 유사성들에 의해 주어지며, 이것은 다양한 사물들 사이의 하나의 동일성(sameness)이 아닐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말하자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어떤 사물이 주어진다면, 이 사물이 소유하고 있는 한 특수한 국면이 있고 (우리가 '푸르다'고 하는 그 사물의 표면에 있는 색깔 조각), 이 국면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각각의 다른 사물의 특수한 국면(그 표면의 푸른 조각)과 유사하다. [...] 이런 서술에서 수많은 특수한 유사성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동일한 유사성'(the same resemblance)이 거론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그 집합의 유사성은 보편자를 도입시키는

7) Denkel (1996), p.172.

그런 하나의 유사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이 특수한 유사성들의 통일성은 하나의 사물의 그 특수한 국면과 다른 사물들의 특수한 국면들을 연관 지음으로써 확립된다.⁸⁾

그는 각 사물들의 국면들 사이의 유사성들이 반복되는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면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각각 개별적인 유사성이다. 일찍이 러셀(B. Russell)은 개별 사물의 성질들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이 보편자여야 한다고 논증한 바 있다. 그의 논증을 인용해 보겠다:

만일 우리가 보편자 흰색과 삼각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특수한 조각의 흰색과 특수한 삼각형을 선택해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선택한 특수자와 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흰색이거나 삼각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요구되는 유사성은 보편자여야 할 것이다. 많은 흰 사물들이 있으므로 유사성은 특수한 흰 사물들의 수많은 쌍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자의 특질이다. 각각의 쌍에 다른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유사성들은 서로 유사하며, 따라서 마침내는 보편자로서의 유사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성의 관계는 진정한 보편자임에 틀림없다.⁹⁾

여기서 러셀은 성질이 보편자라는 것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유사성이 보편자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러셀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사물들이 가진 속성들 간의 유사성이 바로 보편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예컨대, 이 책의 1쪽의 흰색과 2쪽의 흰색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1쪽과 3쪽 흰색과의 유사성, 4쪽의 흰색과의 ... 유사성이 있다. 또한 2쪽의 흰색과 그 나머지 쪽 각각의 흰색과의 유사성이 있다. 종이의 흰 경우들 간에 각각 유사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 그로부터 그 유사성이 보편

8) *Ibid.*, pp.44-45.

9) Russell (1912), p.96.

자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유사성이라는 술어가 각 쌍들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각 쌍들에 동일한 술어를 적용한다고 해서 각 쌍들에 성립하는 유사성이 하나의 동일한 유사성이라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성질들의 각각의 쌍에 대해 공통 유사성이라는 관계를 발견한다 해도 그것으로부터 그 유사성들이 공통된 유사성이라거나 보편자의 예화라는 것이 바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러셀은 각각의 유사성이 보편자라고 단정 짓는다. 그는 만일 특수한 성질들 간의 유사성들 각각이 특수한 유사성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예컨대 이 책의 흰색들 각 쌍에 성립하는 유사성들이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사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런 2차적 유사성에 이어 3차적, 4차적 유사성이 성립하게 되며, 그것은 무한하게 진행된다고 한다. 그래서 무한 소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성립된 1차적인 유사성을 보편자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증의 요지이다. 물론 1차적 유사성 이외에 2차적, 3차적 ... 유사성이 성립하는 것은 허용한다면 수많은 유사성들이 존재하므로 보편자를 설정하는 입장보다 어떤 면에서 덜 경제적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한 차원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러셀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것은 악한(vicious) 무한 소급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1차적 유사성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2차적, 혹은 그 이상의 고차적 유사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무한 소급은 악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로, 텐켈은 두 국면들 간의 유사성은 각각이 다른 특수한 유사성들이라고 간주한다. 즉, 두 국면들 간에 성립하는 각각의 유사성은 각각의 서로 구분되는 유사성들이라는 것이다. 명백히 러셀의 논증은 설득력이 없고 여기까지 텐켈이 옳아 보인다.

그러나 성질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단지 트롭의 유사성에 의거해서 특수한 성질들이 단일한 집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까 하는 것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트롭들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캠벨과 라보시에가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다음절에서 그들의 입장을 제시한 후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2.2 캠벨과 라보시에의 입장

덴켈과 마찬가지로, 윌리엄즈와 캠벨과 같은 트롭 유사성 이론가에 의하면, 트롭이 모든 유사성의 근본적인 관계 항이다. 즉, 모든 유사성은 근본적인 구성요소인 트롭들의 유사성으로 설명된다. 두 개별적인 사물의 유사성은 궁극적으로 사물들에 속하는 트롭들 간의 유사성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두 “보편자들” 간의 유사성은 각각의 트롭들의 집합에 속하는 트롭들 간의 유사성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한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과 유사하다는 것은, 한 당구공의 색깔, 모양, 무게 등이 다른 당구공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며, 붉은색이 노랑색보다는 오렌지색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붉은 트롭의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붉은 트롭이 노랑 트롭의 집합에 속하는 어느 다른 구성원보다 오렌지 색 트롭의 집합의 모든 구성원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의미한다.

트롭들 간의 유사성이 트롭 유사성 이론 내에서는 근본적인 개념이다. 그것이 다른 근본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자라 하더라도, 어떤 식의 관계인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윌리엄즈나 덴켈 같은 트롭 유사성 이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트롭과 그것들의 유사성만으로 성질의 반복을 설명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다 상세하게 유사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캠벨과 라보시에에게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관계인지 캠벨에게서 살펴보자.¹⁰⁾ 그는 관계적 사실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모든 관계적 사실이 그것의 관계 항들에 부가적인 존재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즉, 어떤 관계적 사실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10) Campbell (1990), 제2장과 제5장 참조.

들 이상의 부가적인 존재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흔히 내적인 관계와 외적인 관계를 구분한다. 캠벨은 그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계 항들의 변화 없이 그것들 간에 성립하는 관계가 변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적인 관계이다. 관계 항들의 변화 없이 그것들 간에 성립하는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외적인 관계이다. 내적인 관계는 그것의 관계 항들에 부가적인 존재자가 아니다. 외적인 관계는 그것의 관계 항들에 부가적인 존재자이다. 캠벨은 유사성은 내적인 관계의 일종이고, 내적인 관계는 그것의 관계 항들 이상의 부가적인 존재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유사성을 비롯한 내적인 관계는 그것의 관계 항들의 성질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자신의 입장을 환원주의(reductionism)와 구분되는 토대주의(foundationism)라고 부른다. 토대주의란, 관계는 관계 항들에 있는 특질들에 의해 존재하며, 그것들의 적절한 변화 없이는 그 관계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토대주의는 두 관계 항이 유사하다면 그것의 토대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관계가 아주 다른 토대 관계 항들에 의거해 있으면서 유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나무의 왼쪽 잎의 색깔과 오른쪽 잎의 색깔 사이에 1차적인 유사성의 관계가 성립하고, 또, 그것들의 모양들 사이에서 또 다른 1차적 유사성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경우의 유사성이라는 2차적인 내적인 관계는 서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닮고 있지만 각각이 근거하고 있는 관계 항들의 성질은 다르다. 즉 하나는 색깔이고 다른 하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토대주의는 유사한 관계들이 유사한 토대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캠벨은 자신의 토대주의를 수반(supervenience)의 개념에 의해 설명한다. 영역 A가 영역 B에 수반되어 있다고 하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한 영역의 특징이 다른 영역의 특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B 영역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A 영역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고정한다는 것이다. 즉 B 영역의 차이 없이 A 영역의 차이가 없으며, B 영역이 동일하면 A 영역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켈벨이 서술한 바를 요약하면, 두 사물의 유사성은 궁극적으로 트롭 간의 유사성으로 환원되며, 유사성은 내적인 관계이고, 그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항들에 근거한 수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라보시에는 켈벨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용어를 쓴다.¹¹⁾ 그도 역시 모든 관계들이 그것의 관계 항들에 부가적인 존재자는 아니라고 한다. 즉, 외적인 관계는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이고, 내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는 전자를 “비-실체-관계(non-entity-relation)”라고 부르고, 후자를 “실체-관계(entity-relation)”라고 칭한다. 그에 의하면 유사성은 비-실체-관계이다. 비-실체-관계란 존재론적으로 그 관계에 연루된 실체들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관계이다. 반면에 실체-관계란 그 관계에 연루된 실체들 이상의 존재론적인 실체이다. 그는 ‘보다 더 용감한’이라는 관계가 비실체적 관계라고 예를 든다. 철수가 상당히 용감하고 인수가 겁쟁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철수는 인수보다 더 용감하다는 것이 귀결된다. 이 관계가 변하기 위해서는 철수나 인수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질이 변해야 한다. 그는 a가 b를 닮았다는 것이 a가 b보다 더 용감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실체-관계의 경우라고 덧붙인다.

다른 곳에서 그는 유사성에 관한 다른 측면에서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¹²⁾ 그에 의하면, 두 트롭 간의 유사성은 정확한 유사성이거나 부정확한 유사성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만일 두 트롭이 질적으로 구분 불가능하다면, 그것들에는 정확한 유사성이 성립하고, 두 트롭 간의 유사성의 정도가 전적으로 비 유사성(다름)보다는 크고 정확한 유사성보다는 작다면, 그것들 간에는 부정확한 유사성이 성립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종적인 “보편자”는 정확히 닮은 트롭들 간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또한 유적인 “보편자”는 부정확하게 닮은 트롭들 간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필자는 유사성을 내적인 관계나 비실체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않으려고 한다. 단지 그것이 ‘보다 더 용감한’과

11) LaBossiere (1996).

12) LaBossiere (1993).

같은 종류의 내적인 혹은 비실체적인 관계인가 하는 것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유사성은 다른 내적인 혹은 비실체적인 관계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3. 트롭 유사성 이론의 문제점

3.1 종적인 “보편자”: 정확히 유사한 트롭들의 집합

먼저, 정확한 유사성에 대한 트롭 이론가의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이 책의 1쪽의 흰색과 2쪽의 흰색이 성질로서의 차이가 없어서 질적으로 구분 불가능하다고 하자. 트롭 유사성 이론가는 그 흰색들이 동일하다고 하는 대신 정확히 닮았다고 한다. 이것은 단지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다. 종적인 “보편자”란 다름 아니라 성질의 차원에서 구분 불가능한 트롭들의 집합이다. 그런데 트롭 이론가들에게 트롭이란 특수화된 성질이지, 보편자로서의 성질이 특수한 장소에 예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트롭이란 보편자로서의 성질과 그것을 특수화하는 장소의 복합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트롭은 단순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그 특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다. 하나는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성질의 특수성이란 원초적인 개념이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장소에 의해 성질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입장의 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이 책의 1, 2쪽의 흰색들이 구분되는 것은 각각이 구분 가능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흰색은 1쪽에 후자의 흰색은 2쪽에 있다. 트롭 이론가들은 개별적인 사물과 그것에 속하는 성질에 대해 동일한 동일성 원리를 적용한다. 즉, 어떤 존재자들이 개별적인 사물이든, 속성이든, 그것들이 다른 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분 가능하다면, 꼭 같은 의미에서 그것들은 다른 개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와 한 성질이 차지하고 있는 장

소는 엄연히 다른 방식으로 각각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즈나 챔벨은 성질-트롭을 정의할 때, 그것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독점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성질-트롭과 같은 장소를 공유한 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별적 사물은 한 장소를 독점하여 나타나므로 다른 존재자와 그것을 공유할 수 없다. 트롭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사물은 그것을 구성하는 트롭들이 공존함(coexist)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문제는, 특수한 성질의 경우에는 (예컨대 1쪽의 흰색) 장소가 그것에 나타난 성질에 외적인 것으로 판명된다. 반면에, 개별적인 사물의 경우에는 (예컨대 1쪽의 종이) 장소가 그것에 내적인 것이다. 만약 장소가 성질-트롭에 내적인 본성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다른 성질-트롭과 공유할 수 있겠는가? 트롭 이론가들에 따르면, 예컨대 이 종이의 흰색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그것에 내적이고 이 종이의 직사각형 모양에도 내적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종이의 흰색과 이 종이의 직사각형 모양이 같은 장소를 공유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성질과 그것이 차지하는 장소와의 구분은 단지 생각 속의 구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분이다.¹³⁾

장소가 트롭에 외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트롭의 특수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근본적인 트롭은 단순한 존재자인데, 그것이 자신에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 특수화된다면 더 이상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챔벨은 장소가 특수한 성질에 외적인 것임을 자각하고 성질을 특수화하는 다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입장이다. 즉, 특수한 성질 자체를 더 이상 분석 가능하지 않은 원초적인 개념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결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개념이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원초적인 것이라면, 더 이상의 환원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것의 개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개념은 명백하여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13) 장소가 성질에 외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트롭 이론가들의 입장에 다른 측면의 논의에 대해서는 김희정 (2001), 특히 pp.234-242 참조.

한다. 그러나 트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경계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이 종이 위에는 몇 개의 흰색 트롭이 있는가?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많다고도 할 수 있다.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한 장의 종이라는 장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의 종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그 종이의 흰색 트롭에 외적인 것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다시 트롭을 보편적 성질과 장소의 복합물로 간주하므로 두 번째의 해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흰색을 하나의 흰색 트롭이라고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트롭의 동일성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관례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실로 트롭 이론가들은 아직까지 트롭의 특수성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윌리엄즈, 스타우트는 앞에서 논의한 두 해결책을 애매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챔벨은 각각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그는 전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자의 해결책으로 넘어갔지만 곧 후자의 문제점도 깨닫고 제 3의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트롭 이론을 지지하는 것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입장이므로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¹⁴⁾ 트롭 이론가들이 트롭의 특수성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전에는 성질적으로 구분 불가능한 두 사례의 흰색을 동일한 성질이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의 정확한 유사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2 유적인 “보편자”: 부정확하게 유사한 트롭들의 집합

이번에는 부정확한 유사성에 대한 트롭 이론가의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트롭들의 부정확한 유사성만으로는 유적인 “보편자”를

14) *Ibid.*, pp.242. 참조.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다. 앞서 덴켈은 사물들 간에 나타나는 성질의 반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인정했다. 그가 의미하는 측면이란 보편자로서의 성질이 아니라 특수자로서의 성질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두 트롭의 유사성을 거론하는데 여전히 어떤 식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2절에서 덴켈이 인정하는 측면과는 다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트롭들 간의 유사성은 켐벨의 용어로 내적인 관계로, 라보시에의 용어로 비실체적 관계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용감하다’ 든지 ‘더 크다’와 같은 다른 내적인, 비실체적인 관계와는 다르다. 여타의 내적인 관계는 관계되는 두 항이 주어졌을 때 단지 두 항의 본성에 수반된다. 그러나 트롭들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비교되는 측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의 붉은 트롭과 오렌지 색 트롭이 있다고 하자. 각각의 것은 사실상 그것의 색조, 채도, 명도로 구성된 복합적인 트롭이긴 하지만 편의상 단순한 트롭이라고 가정하자. (아니면, 그것의 색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자.) 두 트롭은 질적으로 구분되므로 정확히 닮고 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부정확하게 또는 어느 정도 닮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들 간에는 한편으로는 부정확한 유사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붉은 계통의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단지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단지 트롭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닮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히 닮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트롭 유사성 이론가는 어떻게 다른 차원의 유사성들이나 아니면, 유사성과 차이라는 아주 다른 내적인 관계들이 두 단순한 트롭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트롭들, 그것들에 수반되는 부정확한 유사성이라고 하는 내적인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 정도의 유사성들이나 혹은 유사성과 차이라는 내적인 관계들 둘 다가 두 트롭들 간에 성립하는 것은 두 트롭들이 비교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비로소 설명된다. 그래서 ‘부정확하게 닮았다’라는 내적인 관계

는 ‘더 용감한’ 혹은 ‘더 큰’과 같은 내적인 관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1cm 주사위 크기와 2cm 주사위 크기의 트룹들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것들을 비교할 때 다른 부가적인 것 없이 바로 b는 a보다 ‘더 크다’는 내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b가 a를 닮았다는 것은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둘을 비교하는 어떤 측면을 개입시킬 때 다르다든가 아니면, 부정확하게 닮았든가 하는 내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즉, 그들은 1cm 혹은 2cm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길이라는 측면에서 닮았다.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해 보겠다. 부정확하게 유사한 트룹들의 집합은 ‘어느 정도’(to some degree) 닮은 트룹들로 형성되어 있다고 트룹 이론가들은 설명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닮고 있는 트룹들이란 어떤 의미인가? ‘어느 정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정확하게 닮은 트룹들이 어떻게 한 집합을 형성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붉은 트룹은 심홍색 트룹과 어느 정도 닮았는가? 또 붉은 트룹은 녹색의 트룹과 어느 정도 닮았는가? 붉은 트룹과 원 모양의 트룹은 어느 정도 닮았는가? 1cm 체적의 트룹과 20Kg의 무게 트룹은 어느 정도 닮았는가?

트룹 유사성 이론가는 두 트룹들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성립하는지 트룹들이 비교되는 측면에 의거하지 않아도 명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트룹들이 어떤 측면에서 비교되는지에 따라 그 유사성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붉은 트룹과 노란 트룹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 만일 그것들이 복합적인 트룹이라면,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트룹들을 공유하는 정도에 의해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트룹들 간의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컨대, 그것들이 위치해 있는 색깔의 순서(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에서의 거리에 호소함으로써 그 두 트룹이 어느 정도 닮았는지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트룹 유사성이론이 옳다면, 색깔 트룹들 간의 유사성의 정도에 호소함으로써 색깔의 순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된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이미 전제된 측

면이나 순서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비교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유사성'의 개념도 명백히 할 수 없다. 붉은 트roup이 녹색 트roup보다도 푸른 트roup에 더 유사한가? 만일 이 색깔들이 색깔 띠와 같은 순서로 이미 무리 지워져 있지 않다면, 그들 간의 부정확한 유사성을 논의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색깔 띠와 같은 순서로 이미 무리 지워져 있을 때, 우리는 두 개의 혹은 그 이상의 트roup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대해 명백히 말할 수 있다. 트roup 유사성 이론가는 어느 정도로 닮은 트roup들에 의해 그것들의 집합을 형성한다고 하고, 그 집합에 의해 “보편자”를 설명해 보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미 무리 지워진 트roup들이 유사성에 선행하는 것 같다. 무리 지워진 트roup에 의존한다면 결국 유사성에 의뢰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무리 지워진 트roup이란 무엇인가? 트roup들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것에 의뢰하는 것이 보편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무리 지워진 트roup이 트roup의 유사성에 우선한다는 것이 바로 스타우트의 입장이었다. 그는 특수한 성질들이 무리 지워져 있는 것이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통일체이고 이것으로 “보편자”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암스트롱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성질의 반복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보다 그 현상을 단지 재 서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⁵⁾

필자의 목적은 트roup 유사성 이론의 설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정확한 유사성은 다른 내적인 관계와 달리 그것의 성립에 대해서 측면이라는 것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 이론의 불충분함을 보인 것 같다.

15) Armstrong (1978), p.4.

참 고 문 헌

- 김희정 (2001), “트롭 이론(Trope Theory)의 두 논증에 대한 비판,” 『철학』 68, pp.231-256.
- Armstrong, D. M. (1978), *Nominalism and Realism: Universals and Scientific Realism*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Keith (1981), "The Metaphysics of Abstract Particular,"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I: The Foundations of Analytic Philosophy* Vol. 6, edited. by P.A. French, T.E. Uehling and H.K. Wettstei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477-488.
- _____ (1983), "Abstract Particulars and the Philosophy of Mind,"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 129-141.
- _____ (1990), *Abstract Particulars*, Basil Blackwell.
- Denkel, Arda (1996), *Object and Prop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ssiere, Michael C. (1993) *A World of Particulars: a Trope Solution to the Problem of Universals*, Ohio State University.
- _____ (1996), "Reply to Hochberg,"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4: 162-170.
- Locke, John (1961),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veryman.
- Price, H. H. (1953), *Thinking and Experien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Russell, Bertrand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 Stout, G. F. (1921-22), "The Nature of Universals and Propositions,"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Vol. X.
- _____ (1923), "Ar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Things Universal or Particular?,"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S 2.
- _____ (1936), "Universals agai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S Supp. 15.

Williams, D. C. (1953), "On the Elements of Being," *The Review of Metaphysic* 7: 3-18.